



## 최근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동향

이소양 연구원

최근 일본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음. 2019년 3월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 허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또한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레벨3’ 수준까지의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제조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안바 있음. 현재 4개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개발에 착수함

- 최근 일본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음
  - 2015년 10월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목표로 세웠으며, 다양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2019년 3월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 허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임<sup>1)</sup>
  -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가속·조타·제동을 모두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였음<sup>2)</sup>
    - 또한 기존의 일반차량과 달리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내비게이션 화면 시청, 특정 조건<sup>3)</sup>에서의 식사, 컴퓨터 이용을 허용하였으나 음주, 수면 등 행위 금지를 유지하였음

1) 日本經濟新聞(2019. 3. 8), “自動運転ルールを閣議決定「スマホ見ながら」容認”

2)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법제도에서 허용될 수 있는 운전 유형은 자동화운전의 수준에 따라 ‘레벨1(비자동화)’, ‘레벨2(부분 자동화)’, ‘레벨3(조건부 자동화)’, ‘레벨4(고도 자동화)’, ‘레벨5(완전 자동화)’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현행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항상 운전상황을 감시하면서 조작할 필요가 있으며 가속·조타·제동 중 복수의 조작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만을 허용하고 있음

3) 예를 들어 주행 중 도시락 식사,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업은 가능하지만 자율주행 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

-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안전대책을 추가하였음
  - 새로운 안전대책은 보안대상장치에 자율운행장치 추가, 전자제어장치를 통한 차량 성능 변경 허가제 도입, 정비사업자를 위한 자동차 제조사의 장비 기술 정보 공제 의무화, 자동차의 전자적 검사 도입 및 이에 따른 자동차기술종합기구 설립 등이 있음
- 또한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레벨3’ 수준까지의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제조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한바 있음<sup>4)</sup>)
  - 동 방안은 ‘레벨3’ 수준까지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차량 제조사는 차량 시스템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고, 외부 해킹으로 인한 사고는 정부가 보상함
  - 또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일반차량 운전자처럼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함
- 현재 4개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개발에 착수함
  - 2018년까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보재팬니혼코아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아이닛세이도외손해보험 등 4개사는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을 개발하였거나 개발하고 있음<sup>5)</sup>
    - 2016년 11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험차량을 위한 손해보험상품을 출시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을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보험가입자에게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보장 특약을 무료로 제공하였음<sup>6)</sup>
    - 2018년 10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자동차기업인 도요타와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개발에 협력하기로 함<sup>7)</sup>
  - 손보재팬니혼코아홀딩스는 2017년 2월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2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기업인 Tla Four 및 Aisan Technology와 함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음<sup>8)</sup>
  - 2017년 11월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아이닛세이도외손해보험은 각각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손해보험상품을 출시하였음 **kiri**

우 운전자에게 안전의무 위반 책임이 있음

4) 이기형(2018. 4. 23),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5) Insurance Business ASIA(2018. 5. 17), “Japanese insurance industry gearing up to accommodate self-driving cars”  
 6)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레벨3’ 수준까지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보장까지 포함시켰으나, 그 때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아직 허용되지 않았음  
 7) 日本經濟新聞(2018. 10. 30), “トヨタと東京海上、自動運転分野で提携・事故データ活用”  
 8) Livedoor NEWS(2019. 2. 21), “自動運転時代の自動車保険とは?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の戦略”